특 집

2000년도
아시아 · 태평양 주요국가의 전자산업동향(Ⅰ)

■주요국가의 경제 및 전자산업 개요

■국별 전자산업 동향
- 한국
- 일본
- 대만

특집

주요 국가의 경제 및 전자 산업 개요

1. 경제 개요

세계 경제의 성장 전망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부상하고 있는 시장의 상승세를 반영하고 있다.

세계 GDP의 성장률은 1998년의 2.5%에서 1999년 3.3%, 2000년과 2001년에 3.6%로 예측되고 있으며 Y2K로 인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아 이 예측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식 시장과 달러 가치의 하락에서 야기된 미국의 경착륙 정책과 중국, 러시아의 마이너스 성장 및 지나치게 높은 유가 등 몇 가지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는 아직도 남아 있다.

미국에서는 주택 부문 경기가 전혀 둔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국내 수요 또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지출 또한 커서 이러한 경기가 지속되면 연방정부가 2000년에 긴축 금융 정책의 강도를 더 높일 우려가 있으며 주가 또는 달러 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러한 우려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은 GDP 성장세가 1999년 3.6%에서 2000년 3.0%, 2001년 2.5%로 둔화하면서 연착륙이 예상된다.

일본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공공부문에의 막대한 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투자와 고용이 제한되어 민간 수요가 위축되고 취약한 노동시장과 낮은 실질 임금 상승으로 소비자 지출이 제한 받고 있으며 한편으로 엔화의 가치가 더 상승할 경우에는 수출에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양책과 초저금리에 힘입어 GDP의 성장률은 1999년 1.0%에서 2000년 1.3%, 2001년 1.8%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성장률은 1998년 2.8%에서 1999년 2.2%로 둔화되었으나 독일과 프랑스, 또 제한적으로는 이탈리아의 강력한 경제 활황과 함께 경제 활동이 개선되고 있다.

역내 수요의 부양과 특히, 유로화 가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으로의 수출증가에 힘입어 제조업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EU의 GDP는 아일랜드, 스페인, 핀란드의 주도로 2000년 2.9%, 2001년 2.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을 제외하고 1999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휩쓴 전례없는 실질 GDP 감소 후에 이제는 경기 후퇴에서 벗어나 경제 회복의 궤도에 들어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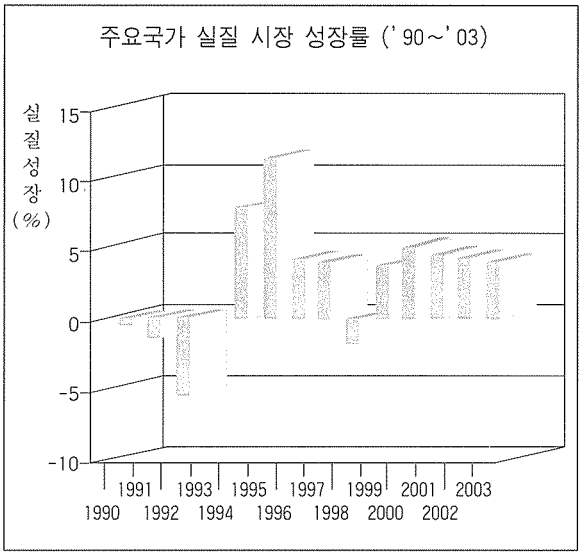
회복의 속도는 지역별로 달라서 1999년에 한국의 회복 속도가 가장 높아 7.5%, 다음으로 대만 5.5%, 싱가포르가 4.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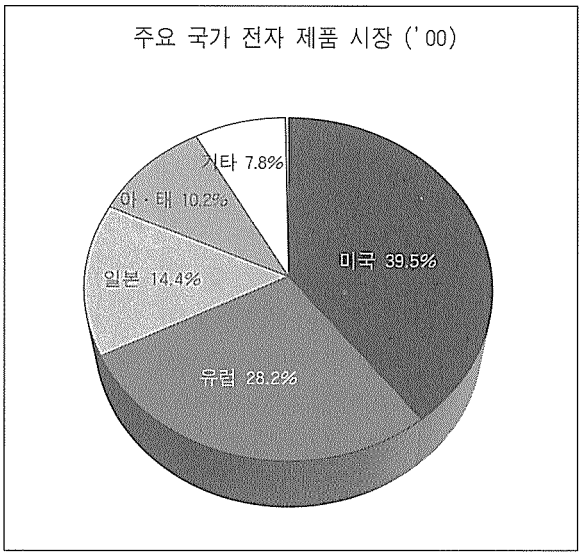
경기 회복이 가장 불안정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마이너스 1%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1998년에 GDP 감소율이 14%였으며 홍콩이 1%성장에 그친 것을 고려한다면 큰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의 나머지 국가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에서의 경제 활동은 둔화되고 있으며 실질 GDP는 1998년의 7.8%에서 1999년 7.0%, 2000년에 6.5%로 그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남미의 GDP는 1999년의 제로 성장에 이어 2000년 3.4%, 2001년 4.0%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동유럽의 성장률은 1999년 1.9%, 2000년 3.4%, 20001년 4.0%로 예상되며 구 소련 지역은 러시아의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1999년의 0.9%, 2000년 1.7%, 2001년 2.6%의 성장률이 예측되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남게 될 것 같다.

선진 경제국의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지만, 1999년 1.4%에서 2000년 1.9%, 2001년에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전자 산업 개요

서유럽, 미국, 일본 및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의 32개 주요국가의 전자 장비, 부품 시장은 1998년에 9470억US$이었는데 이는 1997년의 9740억US$에 비해 2.8% 감소한 수치로서 환율 변동과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 감소율은 1.8%였다.

역사적으로 시장은 1989년에서 1993년 사이의 5년간 침체기를 경험한 후 1994년 7.6%, 1995년 실질 성장률 11.4%까지 가파르게 성장하다가 1996년 4.1%, 1997년 3.9%로 성장률이 둔화된 데에 이어 1998년에는 시장이 1.8% 축소되었다.

1998년의 마이너스 성장은 경제위기로 인해 아시아·태평양의 시장이 22% 감소하였고 반도체 시장이 심각한 가격 하락을 겪으며 8% 축소된 데에 기인한다.

1999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매우 빠르게 회복하였으나 일본의 경기 침체는 계속되었다. 유럽의 성장세가 강한 가운데 반도체 시장의 실질 성장률은 3.9%로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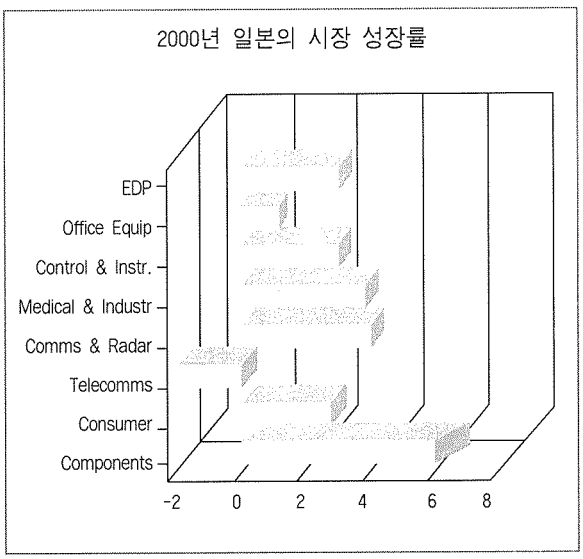
2000년에는 일본의 경기가 회복되고 여타 지역이 상승세를 구가하는 가운데 시장의 성장률은 5%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금세기 초반에는 성장률이 완만하게 둔화할 것으로 보이나 2003년에도 4%는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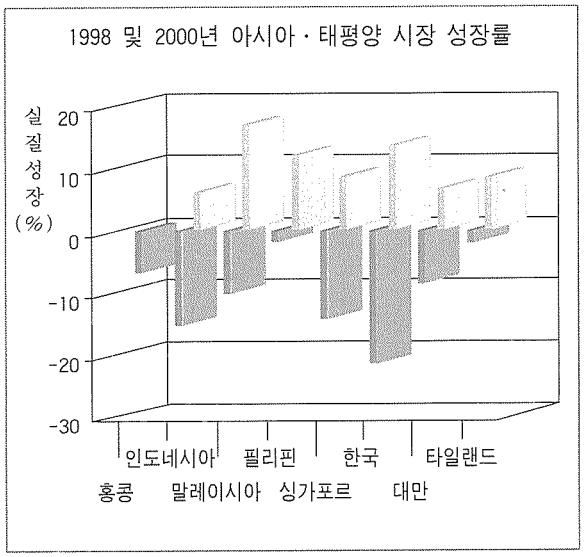
1997년을 제외하고는 Year Book의 모든 수치가 1998년의 고정 환율과 시세를 기준으로 표시되므로 성장률은 실질적인 수치이고 물가 상승은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생산량과 시장 규모 평가는 공장 판매액(Factory sales)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소비세(Retail taxes)와 소매 이윤(Mark-ups)을 포함하지 않는다.

1998년에 미국 시장의 성장률은 1.1%에 불과하였으나 이 낮은 성장률은 11%나 축소된 반도체 시장의 침체에 원인이 있다.

EDP시장의 7% 성장에 힘입어 컴퓨터 제품 시장은 5% 성장하였다.

비디오 제품 시장은, 대부분이





수입되는 컬러 TV의 수요가 2천8백만 세트에서 3천 4백만 세트로 증가하는 등 11% 성장하였다. 그러나 휴대폰을 포함해 무선 통신 장비 시장은 과거 2년간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 이후에 실질적으로 축소되었다. 1999년에 반도체 시장은 8% 성장하였고, 무선 통신 장비 시장은 4% 성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수는 줄었다. 전체 총 시장의 성장률은 4%로 추산된다.

1998년은 시장 규모가 엔화로 13%나 줄어드는 등 일본에겐 재앙의 해였으며 이 수치는 달러화로 계산하면 엔화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더 악화되어 19%에 달한다.

가전 시장은 엔화 기준으로 가장 큰 16%의 감소를 보였다. 컬러 TV 수는 16% 감소하였으나 금액으로 따지면 가격 인하가 있었기 때문에 32%나 감소한 결과가 되고 시장 전체에 걸쳐 이러한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가장 감소 폭이 적은 시장은 6% 감소한 무선 통신 장비 시장이었다.

시장은 1999년에 회복세를 보여 1%의 성장률이 예상되며 반도체 시장이 3% 성장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완만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은 2000년의 4% 성장을 거쳐 2002년에는 약 5%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경제 위기의 영향이 예상보다 더 컸다. 8개국의 생산량은 실질 달러 가치로 13% 감소하였으나 시장 규모는 23% 축소되었다.

이는 몇몇 국가의 경우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현지 화폐로 따지면 수출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인데 말레이시아의 경우 현지 화폐 기준으로 생산량이 27% 증가하였으나 달러화로는 9% 감소하였다.

최악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경우 시장이 43%의 큰 폭으로 축소되었고 생산량은 21% 감소하였으나 생산량을 원화로 계산하면 오히려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은 미화에 대한 고정 환율을 고수하고 있으나 시장은 역시 13% 축소되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나라는 대만으로서 시장은 달러 기준으로 단지 2% 축소되었을 뿐이다.

필리핀과 태국의 생산량(Production output)도 달러 기준으로 단지 2% 감소하였을 뿐 현지 화폐 기준으로는 상당히 증가하였다.

총생산량(Total production

output)의 감소는 13%이나 이는 현지 화폐 기준으로는 상당한 성장을 의미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1999년에 급속히 회복하여 시장 성장률은 11%, 생산량은 13%의 증가를 보였다.

2000년에도 역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나 속도는 둔화될 것이다.

이 지역의 경기는 한국의 주도로 그 시장 규모가 1999년에 25%, 2000년에는 16% 성장할 것으로 보여 경제위기 이전 상태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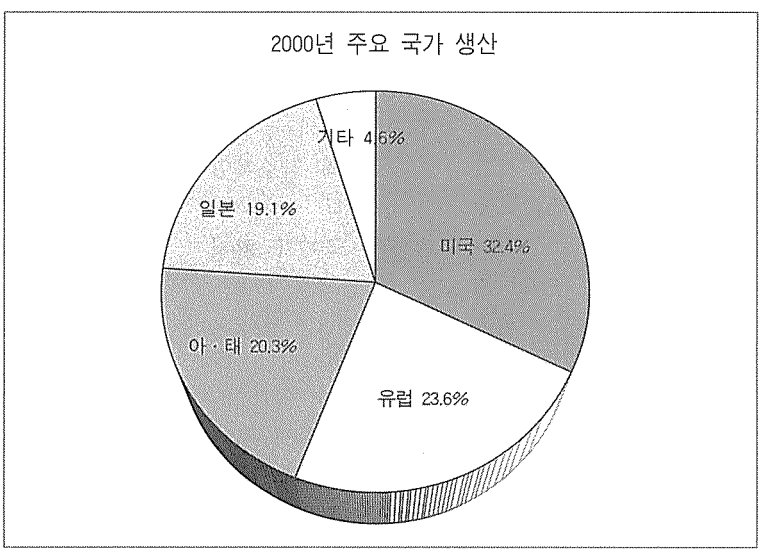
2000년대 초반까지도 원상을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나라는 인도네시아로서 2000년대 중반에야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타의 다른 국가들 중 캐나다, 인도, 이스라엘은 1998년을 꽤 잘 보냈으며 이후 경제 예측 기간 동안에도 왕성한 성장을

실질 시장 성장률 (%)

국가	97/98	98/99	99/00	00/01	01/02	02/03
호주	7.7	5.2	3.7	3.9	3.4	4.0
브라질	-4.3	-3.4	4.7	6.9	6.0	8.0
캐나다	6.1	5.6	4.4	3.1	3.1	3.9
홍콩	-12.7	1.3	3.8	4.5	4.8	5.5
인도	6.5	5.4	7.6	7.0	7.0	6.0
인도네시아	-30.4	-2.4	6.2	7.3	7.5	8.5
이스라엘	3.3	1.2	6.3	6.8	8.6	5.7
일본	-12.6	0.7	3.8	4.3	4.9	4.0
말레이시아	-17.6	12.5	12.2	9.5	6.4	8.5
필리핀	-11.4	5.3	7.1	8.9	7.7	7.1
싱가포르	-22.8	10.5	10.0	7.3	6.0	5.2
남아프리카	30.7	1.1	6.4	9.1	5.8	5.1
한국	-42.6	24.5	15.6	9.5	7.0	5.9
대만	-1.7	5.9	6.6	7.3	6.1	5.5
태국	-15.7	5.6	6.9	6.4	7.0	7.4
미국	1.1	4.2	4.6	4.6	4.4	4.0
미국, 일본, 아시아·태평양	-5.4	4.0	5.2	5.1	4.9	4.5
유럽	-8.8	3.6	4.8	3.1	2.7	3.2
아시아·태평양	-22.6	10.5	9.8	7.9	6.7	6.3
기타	3.6	1.8	4.9	5.5	5.0	5.7
총계	-1.8	3.9	5.1	4.5	4.3	4.1

(아시아·태평양 국가: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대만, 태국 ; 모든 수치는 고정 달러화 constant dollars 기준)



실질 생산량 증가 (%)

	97/98	98/99	99/00
호주	2.1	4.1	3.5
브라질	-4.3	-2.5	3.9
캐나다	5.2	1.1	4.8
홍콩	-6.6	-2.1	0.8
인도	1.4	4.2	6.3
인도네시아	-15.2	-0.1	6.0
이스라엘	9.6	4.0	7.6
일본	-9.9	-0.3	3.9
말레이시아	-9.8	20.4	17.2
필리핀	-1.6	7.8	12.2
싱가포르	-14.1	12.5	8.4
남아프리카	6.7	2.6	3.3
한국	-21.4	19.5	13.9
대만	-8.5	7.9	6.6
태국	-1.7	6.1	8.7
미국	-1.0	3.6	4.5
미국, 일본, 아시아·태평양	-6.3	4.5	5.9
유럽	6.0	3.4	4.6
아시아·태평양	-12.0	12.0	10.7
기타	0.9	0.5	4.9
총계	-3.6	4.2	5.6

구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브라질은 1998년에 자국내의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1999년까지 시장이 매년 약 4%씩 축소되었다.

2000년에는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3년에 걸쳐 매년 7~8%의 높은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전자 제품 생산량은 1997년의 1조1백4십억 US$에서 1998년 9천6백6십억 US$로 감소하였으며 실질 감소율은 3.6%에 달했다.

1998년에 유럽은 16% 증가한데 비해 미국과 일본의 생산량은 각각 1%, 10%씩 감소하였다.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에서 17.9%로 감소하였으며 유럽은 21.8%에서 24.0%로 증가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1999년에 13% 고성장하였고 나아가 2000년에 11%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기 침체는 1999년에도 계속되어 2000년에도 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매년 4%의 성장세로 복귀할 것으로 예측되며 총생산량(Total production amount)은 1999년에 4%로 추산되며, 2000년에는 6%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1996년에는 Year Book의 2권에서 다뤄진 32개 국가가 9천9백4십만 대의 컬러 TV를 생산하였다. 1998년에 이 수치는 8천5백9십만대로 감소하였으나 1999년에는 다시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9천4백3십만 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Year Book의 제 3권에 따르면 중국에서 생산된 컬러 TV 수가 1996년에 4천1백만 대, 1998년에 5천1백만 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이 수치는 2000년에 업데이트 예정임)

1996년에는 15%가 서유럽, 5%가 일본, 34%가 아시아·태평양, 8%가 미국, 29%가 중국에서 생산되었다. 1998년에는 중국에서 생산된 비율이 38%까지 높아졌다.

국별 전자산업 동향

한 국

1. 현황 및 증기 전망

한국은 1998년에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경험하여 4분기 연속 GDP가 감소한 결과, 1996년 7.1%, 1997년 5.5% 증가에 이어 1998년에는 GDP가 전체적으로 5.6% 감소하였다. 소비가 8.2% 감소하고 총 고정 자본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이 20% 이상 감소하는 등 침체는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정책당국은 엄격한 금융과 재정 정책으로 외환과 주식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외국 투자자와 은행으로부터 외자유입을 진작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경제는 아시아권에서 많은 무역량과 투자를 하고 있었으므로 아시아 지역의 재정 위기로 인한 악영향을 받았다.

1999년에는 다소 예기치 못한 강한 경기 반등세가 있었으며 이는 소비자 지출의 회복, 외국인 직접 투자 승인, 주식 시장의 지수 상승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수출의 지속적인 회복은 아직 미약한 지역적 수요 특히, 일본, 중국에 크게 의존한 것이다. 또 중국의 인민폐와 일본 엔화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인민폐의 가치 하락이 있을 경우에 우려되는 지역 화폐의 불안정성이 변수로 남아 있다.

2. 산업 전망

경제 성장의 둔화로 복합 기업 혹은 재벌들이 자금의 유동성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 1997년에 그 중 많은 수가 파산하였다.

노동 시장의 경직과 계열사간의 상호 채무 보증이 구조 조정을 막고 있던 중 1998년 12월에 당국은 5대 재벌이 핵심 사업 부문에 주력하는 형태로 구조조정하도록 설득하였다. 주식 시장은 이 계획을 뒷받침하였고 주가지수는 급등하였다.

1999년 3월 산업 생산 지수 (Industrial production index)는 1995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평균 운전율 (Average operation ratio)은 거의 경제 위기 전의 수준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1/4분기의 성장 후에 수출이 감소하였으며 계속되는 구조조정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도 여전히 침체되어 있었다.

3. 전자 산업

<산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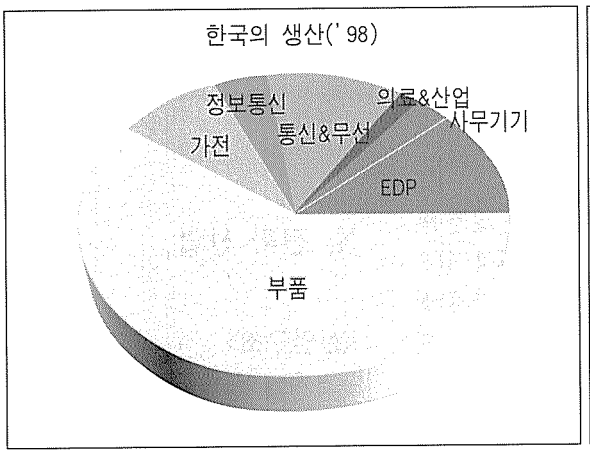
- 전자업체수 : 7,577개사('98)
- 주요 생산 품목 : 컴퓨터 장비, 통신, 가전제품, 부품
- 전자산업 고용 인력 : 394,000명('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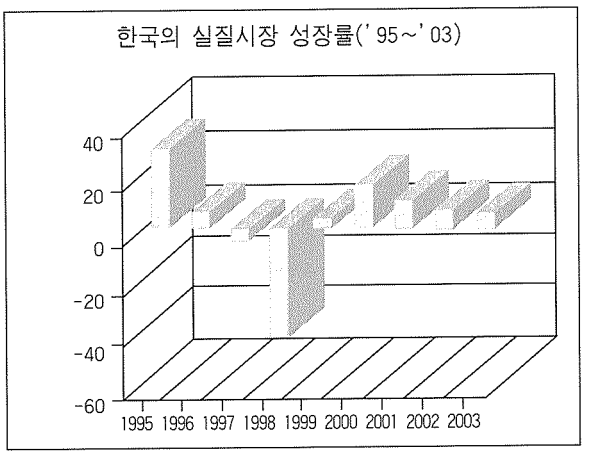
한국은 아시아 지역의 경제 위기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나라 중의 하나로 1998년 생산량이 21%나 감소하였다.

1980년대에 산업이 급성장하였으나 1989년과 1992년 사이에 평균 연간 생산량 증가율 (Average annual production growth)이 5%에 머무를 정도로 성장 속도가 둔화되었다. 그러나 1993년에는 생산량 증가율이 10%로 개선되었고 1994년에 25%의 강력한 성장을 하였으며 1995년에는 36%의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후 1996년에 성장 속도는 4%로 둔화되었고 1998년의 이전 1997년에는 급기야 3% 감소하였다. 산업 구조조정과 통화회수는 전자 산업에 극적인 영향을 끼쳐 1999년에는 강력한 반등세를 보였다.

이러한 경기 회복은 전 세계





적인 반도체 호황에 힘입었던 것으로 보이나 대만은 1999년 말에 발생한 일련의 지진 탓에 많은 공장이 파괴되어 생산에 손실을 입었다. 총 생산 증가량은 20%로 예측된다.

한국의 생산과 시장 규모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 계산되었고 1997년에 1달러 당 951원에서 1998년 1,401원으로 하락한 환율이 성장률 계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97년의 원화 기준 성장률은 15%, 1998년에는 17%였다.

한국은 그 규모 면에서 영국에 필적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 산업 국가 중 하나로서 미국, 일본, 독일의 뒤를 잇고 있다.

1996년에 국내 전자산업 관련 회사는 총 7941개로, 고용인력은 473,000명이었다. 한국의 전자 산업에는 리더인 LG, 삼성, 대우, 현대 전자의 소위 Big Four 외에도 100여 개의 중견 전문 업체와 고용인수 300명 이하의 수많은 소기업이 존재한다. 공장 자동화, 해외 생산 기지 구축 및 국내 수요 침체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전자 산업 고용인수는 1997년에는 455,000명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1998년에는 경제위기로 고용인수가 394,000명으로 13% 감소하였고 회사의 수도 7,577개로 줄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베트남, 중국, 북한을 포함 말레이시아, 태국 등지에서 소비재가 갈수록 많이 생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컴퓨터 제품과 통신 장비가 가지는 의미는 나날이 커져왔다. 1996년에 컴퓨터 제품의 생산은 16% 증가하였으나 1997년에는 1% 증가에 그쳤고 1998년에는 28% 감소하였다. 통신 및 통신 장비 시장은 1998년 8%, 1997년에 24% 증가하였으며 1998년에도 3% 감소에 그쳤는데 이 때에도 무선 통신 시장은 실질적으로 11% 성장하였다. 반면, 가전제품 시장은 1996년 7%, 1997년 24%, 1998년 43%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

한국의 전자 제품 생산자들은 일본의 엔고 덕을 톡톡이 보아왔으며 그 동안 하이테크 제품의 생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생산량의 증가율은 한국의 주요 전자 제품 생산자들이 해외 생산 기지를 확장하면서 둔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한국 경제가 갑작스럽고 극적인 위기를 맞으면서 해외투자가 줄고 국내 생산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서 국내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었다. 1995년에 전자 산업의 해외투자액은 11억9백만 US$, 1996년 10억1백만US$이었으나 1997년에는 8억1천5백만 US$로 줄었다.

한국은 세계 DRAM 칩의 20%를 공급하는 삼성, 현대와 함께 100개 이상의 반도체 관련 기업의 근거지가 되어왔다. 반도체는 1998년에 전자 부품 총생산액의 70%, 한국 전자 제품 생산의 42%를 차지하였다.

<한국의 전자산업 현황>

(단위:백만불)

구 분	1998		1999(추정)		2000(전망)	
	생산	시장	생산	시장	생산	시장
전자산업계	39,275	17,629	46,929	21,953	53,429	25,375
산업용소계	12,361	7,869	16,472	10,049	18,036	11,685
정보기기	5,586	2,033	6,983	2,643	7,681	3,171
사무기기	332	181	339	190	345	196
계측 및 제어기기	210	1,021	242	1,225	246	1,348
의료 및 산업전자	229	231	321	267	337	299
정보통신기기	6,004	4,403	8,587	5,724	9,427	6,671
가정용 소계	3,234	1,137	3,753	1,515	3,917	1,852
영상기기	2,379	904	2,855	1,175	2,998	1,410
컬러TV	1,569	586	1,918	768	2,050	928
비디오레코더 및 디스크플레이어	740	241	848	302	850	349
비디오카메라 및 카메라 콤비네이션	70	105	88	133	98	151
음향기기	534	135	561	203	572	263
카라디오 및 라디오 콤비네이션	241	47	252	71	255	94
라디오	5	2	5	3	5	4
라디오레코더/플레이어	32	40	34	61	35	80
레코더 및 CDP	256	46	270	67	276	85
개인가정용기기	321	98	337	137	347	178
전자부품 소계	23,680	8,623	26,708	10,389	31,476	11,840
능동부품	19,481	5,763	21,575	6,957	26,115	8,236
튜브	2,858	1,176	3,105	1,377	3,355	1,466
다이오드	168	242	180	280	210	320
트랜지스터	457	445	490	500	550	550
IC	15,998	3,900	17,800	4,800	22,000	5,900
수동부품	1,878	1,963	2,348	2,356	2,465	2,473
축전기	583	563	749	674	805	703
저항기	126	191	144	207	139	196
콘넥터	159	328	205	412	221	451
소형 트랜스포머 및 기타 인덕터	135	138	135	157	112	155
릴레이	34	99	40	121	40	130
스위치	40	44	46	48	44	45
PCB	801	600	1,029	738	1,104	792
기타	2,321	897	2,785	1,076	2,897	1,130

일 본

1. 현황 및 중기 전망

1997년 중반 이후 많은 아시아 국가의 대폭적인 재정 긴축과 주요 감산 정책은 불행하게도 2차 대전 이후 경제가 최악의 침체에 빠지는데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감산에 대응하여 1998년에 지출을 늘리는 재정 정책을 펼쳤지만 투자액은 추락하듯 줄어 GDP가 2.8% 감소하였다.

1999년 초에는 회복세에 들어선 듯 보여 1999년 다소간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지만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사라진 이후의 자생력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

2. 정부 정책

1998년 7월 심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 속에서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는 집권 자민당의 의석수가 크게 줄어 하시모토 수상이 사임하고 게이조 오부치가 뒤를 이어 수상직에 올랐다.

자민당은 몇몇 반대당을 연정에 끌어 들여 정권을 공고히 했고 이로써 의석의 다수를 차지, 조기 총선의 가능성을 낮추었다.

외부적으로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과 중국의 영유권 주장으로 주변국과의 정치적 긴장 상태가 촉발되었다.

3. 산업 전망

산업 생산량은 기업들이 과도한 재고를 줄이려 했던 1997년 중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8년 7월에는 전년 수준에 비해 10%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크게 줄어 1998년 4/4분기에는 1997년 1/4분기의 최고치에 비해 18%까지 감소하였다.

1998년에는 한국, 태국 및 말레이시아로의 수출량 감소가 30%를 넘은 한편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55%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역내의 다른 나라에까지 이어져 싱가포르와 태국, 대만으로의 수출도 크게 줄었다. 그러나 자생적인 경제 반등세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여 주가는 정상적 수준으로 돌아왔고 산업 생산량은 아시아 수출량의 회복과 국내 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급격히 증가할 것 같다.

기업의 채산성이 높아지고 있어 2000년에는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4. 전자 산업

<산업구조>

- 전자업체수(오른쪽 위 표 참조)
- 전자산업 고용 인력(오른쪽 위 표 참조)
- 주요생산품목 : 컴퓨터 장비, 통신, 가전제품, 부품

1998년에 일본의 전자 산업은 깊은 침체에 빠져서 엔화 기준으로는 생산량 감소가 9.6%, 달러화로 계산하면 더욱 악화되어 감소량이 16%에 달했다.

이는 비록 엔화의 약세로 달러화 기준 3.9%의 감소를 기록하였지만 엔화로는 7%가 성장했던 1997년의 뒤를 이은 결과였다. 엔화 기준 생산 증가량은 전년도인 1996년에는 5.9%, 1995년 5.1%, 1994년 1.7%에 달했었다.

컴퓨터 제품 시장은 1995년과 1996년에 크게 성장했으나 시장의 대부분은 수입품이 장악했다. 1997년에 수입량 증가 속도는 둔화되었으며 엔화 약세 덕에 수출은 20% 늘고 생산이 9% 증가하였다. 1998년에 시장은 12% 축소되었고 생산은 11% 감소하였다.

이동 전화와 여타 무선 통신 장비의 판매는 매우 활발해 무선 통신 장비의 생산량은 1995년에 32%, 1996년에 51%를 기록하였다.

1997년에는 이동 전화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신규 가입자 증가 추세와 기지국 수요가 둔화되면서 시장이 5% 축소되었으며 무선 통신 부문이 0.5% 줄어들었다.

1998년에는 생산량이 단지 5% 감소하고 시장은 9% 축소되는데 그쳤으며 1999년에 빠른 속도로 회복하여 생산량이 3%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전자업체수〉

(단위:개)

	1995	1996	1997
가전 제품 (Consumer electronic equipment)	2,966	2,563	2,348
전자 부품	7,839	7,576	7,480
통신 장비	578	589	580
전자 응용 장비 (Electronic application equipment)	2,700	2,624	2,595
전자 계측 장비	1,106	1,066	1,044
전관(Electronic tube) 및 반도체	452	444	449
총 계	15,639	14,862	14,496

〈전자산업 고용인력〉

(단위:명)

	1995	1996	1997
가전제품 (Consumer electronic equipment)	162,422	140,745	134,608
전자제품	360,196	383,451	381,566
통신장비	96,516	98,297	92,212
전자응용장비 (Electronic application equipment)	191,159	187,385	186,543
전자계측장비	44,095	44,720	43,456
전관(Electronictube) 및 반도체	227,454	220,128	221,520
총 계	1,101,862	1,074,728	1,059,905

자료 : MTI

반면 통신 시장(Telecommunications)은 1998년에 18% 감소하였으며 1999년에 또 4%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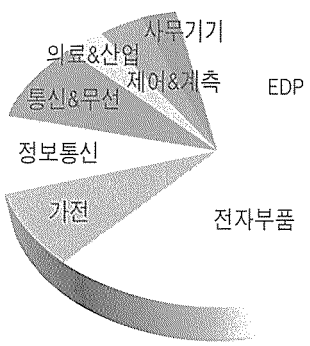
1985년에 가전제품은 총생산량의 23%를 차지하였으나 1993년 16%, 1994년 15%, 1995년 12%, 1996년 11%로 차츰 줄어들면서 1998년에는 9%로 감소했다.

1997년에는 컬러 TV의 생산이 늘면서 일시적으로 그 감소세가 둔화되었으며 1998년에는 컬러 TV 생산량이 17%나 줄었지만 엔화 약세로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생산량 감소는 단지 4%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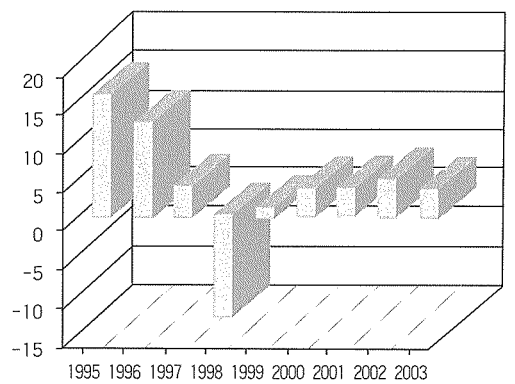
가전 부문은 미국과 유럽의 전자 산업에서와는 달리 일본 전자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크다.

재고 초과분과 가격 하락으로 1996년과 1997년에 반도체 시장, 특히 메모리 분야가 고전하

일본의 생산('98)



일본 실질 시장 성장률('95~'03)



였다.

1998년에는 완제품 생산량의 감소로 인해 컬러 TV용 브라운관의 생산이 줄었으며 오직 액정 생산량만 상당한 규모로 증가하였다.

1996년에는 전반적으로 기능성 부품의 생산량(Active component output)에 변화가 없었고 1997년의 성장률은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렀으나 1998년에는 9% 감소하였다.

해외 생산 기지의 수는 계속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율은 낮았다. 1998년에 그 수는 1274개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4.3% 증가한 수치로서 과거 2년간 증가율은 각각 6.7%, 10.9%이었다.

일본전자산업 협회에 따르면 아시아에 873개, 북미에 223개, 유럽에 145개의 생산기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 생산 기지의 중요성은 1994년 단 690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와 같은 생산 기지 수의 증가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난다.

해외 생산 설비의 고용 인력 수는 1997년에 917,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3.6% 증가하였고 1998년에는 다시 7.1% 늘어난 982,000명에 달했다.

1997년에 일본 전자 산업의 총 고용인 중 46%가 해외에 있었다.

("Year Book"에서 외국인 소유 설비는 설비가 위치한 국가의 일부로 간주된다)

1997년에는 1996년에 비해 일본 소재 설비 수가 2.5%, 고용인 수가 1.4% 감소하였다.

다수의 일본 기업은 원가 절감을 위해 생산 기지를 신흥 공업국(NICs)으로 재배치하였다. 몇몇 회사는 주로 미국 소재 외국인 소유의 기술력 있는 회사 지분을 사들여 무역 제재를 피하고 제품 개발 및 혁신에 노력하였다.

많은 기업이 일본 밖에서 공장을 세우고 부품을 조달하는 탓에 어떤 경우 국내 설비가 폐쇄되는 경우도 있다.

이후에 기존 제품은 해외에서 생산되고 일본내의 설비는 신제품의 생산에 더 주력하게 될 것이다.

경제 여건이 개선될 경우에도 소비재와 여타 장비의 생산은 해외 생산으로 전환한 탓에 예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다.

전자 부품 생산업체들은 국내와 해외에서 지속되는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사업 구조를 조정할 기회를 맞고 있다.

생산 업체들은 시장 점유율보다는 수익과 독창성에 더 주력하면서 타사와의 공동 생산, 공동 마케팅을 실시하며 대내외적으로 R&D 부문의 협조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전자산업 현황

(단위:백만불)

구 분	1998		1999(추정)		2000(전망)	
	생산	시장	생산	시장	생산	시장
전자산업 계	196,180	142,460	195,626	143,422	203,271	148,829
산업용 소계	107,348	86,104	104,739	86,662	108,121	88,681
정보기기	55,966	45,065	53,728	45,516	55,340	46,881
사무기기	5,103	2,460	4,950	2,411	5,049	2,435
계측 및 제어기기	7,303	5,401	7,230	5,455	7,447	5,619
의료 및 산업전자	5,584	3,980	5,594	4,091	5,802	4,247
정보통신기기	33,392	29,198	33,237	29,189	34,483	29,499
가정용 소계	16,791	8,625	16,547	8,759	16,793	9,008
영상기기	10,359	4,133	10,243	4,257	10,600	4,427
컬러TV	3,835	2,567	3,218	2,630	2,969	2,721
LCDTV	229	214	207	225	205	239
비디오레코더	1,749	718	1,456	726	1,331	741
비디오디스크플레이어	810	92	674	94	616	97
비디오카메라 및 카메라 콤비네이션	3,736	542	3,665	582	3,951	630
DVD 플레이어	-	-	1,024	-	1,528	-
음향기기	4,836	3,323	4,739	3,356	4,597	3,424
라디오	38	122	33	124	29	128
카라디오	46	38	34	30	25	223
카스테레오	1,390	825	1,318	856	1,227	893
스테레오시스템	512	428	465	422	415	419
CDP	2,116	1,451	2,241	1,517	2,332	1,596
헤드폰플레이어	145	374	123	334	102	301
테이프 데크	99	-	81	-	64	-
디지털 테이프 레코더	31	-	29	-	26	-
튜너 및 증폭기	122	38	111	35	99	32
개인가정용기기	1,597	1,169	1,565	1,145	1,596	1,157
전자부품 소계	72,040	47,731	74,340	48,001	78,447	51,142
능동부품	45,416	30,504	48,671	31,291	52,376	34,148
수동부품	18,862	11,986	18,296	11,627	18,845	11,859
기타	7,762	5,241	7,374	5,083	7,226	5,134

대 만

1. 현황 및 증기 전망

대만의 경제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그 산업 기반이 강하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외채가 적어 구조적으로 건전하다.

이러한 요인들 덕분에 장기간의 고성장과 무역 및 경상수지(Current accounts)의 지속적인 흑자 유지가 가능하여 세계 최고의 수준의 외환 보유고와 12,000US$이 넘는 1인당 GDP를 이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만도 아시아 지역의 경제 위기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해외 수요가 줄면서 1980년대 초반 이후 최초로 수출량이 감소하였으며 국내 소비와 투자가 침체되어 1998년에는 실질 GDP 성장률이 16년 만에 가장 낮은 4.7%로 떨어졌다.

그러나 대만경제는 그 저력과 당국의 효과적인 대응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

역내 수요 증가와 전 세계의 강력한 전자 제품 수요 증가로 수출량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1999년 10월에 발생한 강력한 지진으로 회복 속도가 둔화되었으나 1999년에 성장률은 5.5% 정도로 예상되며 역내 수요가 지속되고 선진국 전반의 전자제품 수요가 꾸준하다면 2000년에는 성장률이 6.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산업 전망

전자 및 정보 기술 분야의 활황으로 기계 및 섬유 산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1997년 한해 8.7%의 높은 산업 생산 성장(Industrial production growth)을 기록했다. 1998년의 수출 저조로 산업 생산량은 2.4% 증가에 그쳤으나 1999년에 5%로 높아졌고 2000년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만은 넓은 분야에 걸쳐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매우 다양한 산업 기반을 발전시켜왔다.

섬유 산업은 오랫동안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1986년 이후에는 전자제품이 의류 수출을 추월하였다.

노동 집약 사업이 중국 본토를 포함,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같이 역내에서 원가가 적게 드는 국가에 생산 시설을 마련하면서 대만 소재 산업의 미래는 자본 집약적 하이테크 제조업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첨단 가전 제품, 정보기술, 항공우주 산업을 포함한 10대 유망 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3. 전자 산업

<산업구조>

- 전기/전자 회사 수 : 4,300개사('94)

→컴퓨터 및 주변기기 770개사, 통신기기 584개사, 전자부품 1,915개사

- 주요 생산 품목 : 컴퓨터와 주변 장치 & 부품, 통신 장비, 전자 부품
- 전자산업 고용 인력 : 354,000명('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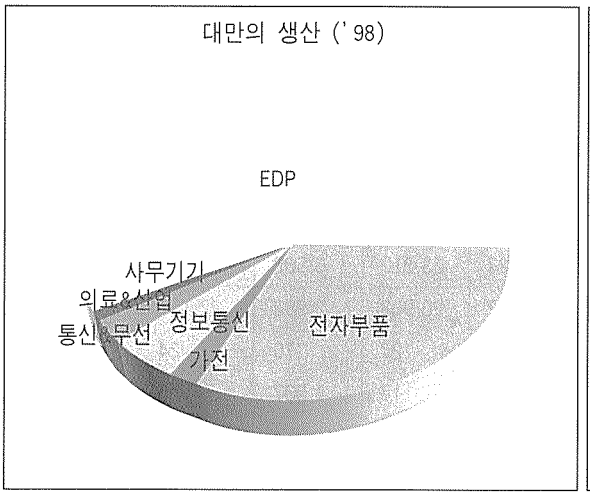
대만 전자 산업의 중심은 컴퓨터 및 부품의 생산으로 총 생산량의 거의 80%를 차지한다. 1998년에 공식 생산 통계에 큰 변화가 있었으나 컴퓨터 산업은 최근까지 경이적인 성장을 경험하여 1990년에서 1998년 사이 4배나 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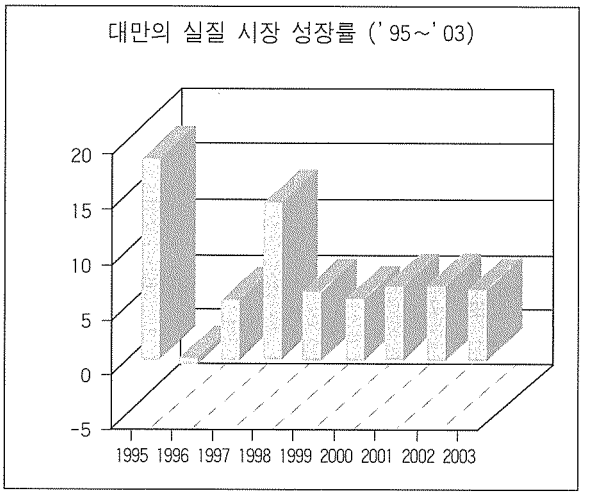
부품을 포함하여 컴퓨터 제품의 생산은 1995년에 35%, 1996년에 20% 성장하였으며 1997년에 10% 성장으로 둔화되었다가 1998년에 다시 12%로 증가했다.

주요 생산 품목은 휴대용 컴퓨터로 1998년에 33% 성장하여 컴퓨터 관련 전체 생산량의 38%를 차지했다.

하드디스크 생산이 350% 증가한 반면 모니터 생산은 17% 감소하였다. 마더보드의 생산은 1997년 55%, 1998년에 46% 증가하여 컴퓨터 관련 전체 생산량의 20%를 차지했다.

다른 주요 분야로 반도체를 들 수 있으며 빠른 속도로 성장





하여 전체 생산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정보통신기기의 생산 또한 비중이 커서 전체 생산량의 7%를 차지하고 있다.

가전 제품의 생산은 몇 년 동안 하락했는데 1996년 19%, 1997년 11%, 1998년에 12%씩 감소하여 현재는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되지 않는다.

대만은 현재 세계 최대 노트북 컴퓨터 생산국 중 하나로서 1997년 460만대에 이어 1998년에는 690만대를 생산하였다.

또한 대만은 마더보드, 마우스, 스캐너, 모니터 및 키보드의 최대 생산국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은 대만 전기, 전자산업의 중추이며 그중 84%는 4천만NT$(150만US$) 미만의 상장 주식 자본(Registered share capital)을 보유하고 있다. 평균 고용인 수는 105명이며 4,300개 기업 중 1,120개는 대만, 70개는 대만과 일본의 합작 기업, 38개는 일본, 25개는 미국, 18개는 대만과 미국의 합작 기업이고 나머지 29개 기업은 기타 의 투자 재원으로 설립되었다.

전자 제품은 지난 수년간 미국, 홍콩, 유럽과 일본을 주요 시장으로 하는 대만의 최고 수출품 중 하나였다.

정부는 전자산업을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부품, 데이터프로세싱,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산업용 전자제품, 시험 장비 및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전자산업을 확대하고 업데이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만의 전자산업 현황

(단위:백만불)

구 분	1998		1999(추정)		2000(전망)	
	생산	시장	생산	시장	생산	시장
전자산업 계	33,574	18,497	36,225	19,594	38,622	20,890
산업용 소계	22,163	6,323	23,817	6,562	25,156	6,790
정보기기	19,355	2,762	20,903	2,983	22,157	3,162
사무기기	30	77	27	76	24	77
계측 및 제어기기	111	1,492	117	1,537	123	1,552
의료 및 산업전자	218	244	225	254	232	265
정보통신기기	2,449	1,748	2,545	1,712	2,620	1,734
가정용 소계	699	686	668	700	656	715
영상기기	301	338	310	345	316	355
컬러TV	170	201	177	211	182	222
흑백TV	7	-	5	-	4	-
비디오레코더	58	88	56	86	52	84
비디어카메라 및 카메라레코더콤비네이션	12	38	13	37	14	36
위성수신기	54	10	59	12	64	13
음향기기	328	297	295	303	280	306
라디오	55	-	50	-	49	-
라디오플레이어	39	-	31	-	25	-
카세트테크	21	-	16	-	14	-
라디오카세트레코더	147	-	137	-	133	-
기타오디오	66	-	61	-	59	-
개인가정용기기	70	51	63	52	60	53
전자부품 소계	10,713	18,497	11,740	19,594	12,809	20,890
능동부품	5,205	8,618	5,867	9,429	6,635	10,400
수동부품	4,247	2,262	4,587	2,307	4,862	2,376
기타	1,261	608	1,286	596	1,312	608